산업맥박

2005년 IT수출 변화요인 분석

1. 2005년 상반기 IT수출 동향

가. 2005년 상반기 IT수출 및 비 IT수출 추이 비교

2004년 6월 이후 IT수출의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어 왔으며, 2004년 12월 이후 증가율이 한자리수대로 진입하였다. 2005년 상반기 IT수출은 전년동기대비 약 3% 증가한 약 375억불을 기록하였다.

※ 분기별 IT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 12.1%(2004/4) → 9.0%(2005/1) → 0%(2005/2)

IT 및 비IT수출 추이 (단위: 백만불, %)

	2003년	2004년			2005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IT수출	57,220 (24.3)	36,436 (46.9)	37,869 (16.8)	74,306 (29.9)	37,540 (3.0)
비IT수출	136,597 (17.3)	86,837 (35.1)	92,702 (28.2)	179,539 (31.4)	99,026 (14.0)
총수출	193,817 (19.3)	123,274 (38.4)	130,571 (24.7)	253,845 (31.0)	136,566 (10.8)

주: 괄호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IT수출의 증가율이 비IT수출의 증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IT 제품의 시장 특성상 양자를 단순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005년 상반기 IT제품의 수출가격은 급속히 하락하였던 반면, 비IT제품의 경우는 원유 및 원자재 비용의 증가에 따라 수출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IT제품은 자동차나 가전과 같은 비IT내구재와 비교하여 감가상각률이 높고 제품주기가 매우 짧아 해외경기 변동에 훨씬 더 민감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수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OECD의 경기지수와 IT 및 비IT수출의 추이를 비교해 보면, IT수출은 해외경기의 상승 및 하강을 선행하여 변동할 뿐만 아니라, 비IT수출의 변동폭보다 훨씬 크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 주요 IT 품목별 수출 추이

전체 IT수출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이동전화단말기와 반도체의 수출증가세가 2004년 대비 크게 둔화 되었으며, 특히 정보기기와 방송기기는 마이너스 수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5년 상반기 이동전화단말기 수출은 약 9.9% 증가에 그쳤으며, 반도체 수출은 두자리수의 증가율은 유지하였으나 2004년 증가율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5년 상반기

품목별 IT 수출 추이 (단위: 백만불, %)

	2004년			2005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통신기기	12,012 (51.8)	13,904 (32.4)	25,916 (40.7)	13,315 (10.8)
이동전화단말기	7,996 (52.1)	9,623 (34.7)	17,619 (42.1)	8,785 (9.9)
정보기기	6,304 (33.7)	5,041 (-12.5)	11,345 (8.3)	4,859 (-22.9)
PC	359 (-51.4)	236 (-65.0)	595 (-57.9)	152 (-57.5)
액정모니터	4,016 (72.1)	2,735 (-12.8)	6,751 (23.4)	2,835 (-29.4)
방송기기	1,552 (59.3)	1,578 (13.7)	3,130 (32.5)	1,376 (-11.3)
DTV	752 (74.7)	846 (10.5)	1,598 (33.6)	759 (0.9)
IT부품	16,523 (47.9)	17,299 (17.4)	33,822 (30.5)	17,959 (8.7)
반도체	13,058 (54.6)	13,772 (19.1)	26,830 (34.1)	14,729 (12.8)
소프트웨어	44 (75.3)	47 (57.1)	92 (65.4)	29 (-33.7)
IT수출	36,436 (46.9)	37,869 (16.8)	74,306 (29.9)	37,540(3.0)

주: 괄호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IITA

PC수출은 약 57.5%감소하였고 액정모니터는 약 29.4% 감소하였다.

부문별 수출 기여도를 비교해보면 통신기기와 반도체는 비록 그 기여도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IT수출 증가의 대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것을 나타난다. 반면, 정보기기와 방송기기는 마이너스 기여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정보기기의 기여도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부문별 수출 기여도 (단위: %)

		2004년 상반기(A)	2005년 상반기(B)	(B)-(A)
IT수출 증가율		46.9	3.0	-43.9
부문별 수출 기여도	통신기기	16.5	3.6	-12.9
	정보기기	6.4	-4.0	-10.4
	방송기기	2.3	-0.5	-2.8
	IT부품	21.6	3.9	-17.6
	소프트웨어	0.1	0.0	-0.1

주: 기여도는 수출비중(전년동기)에 증가율을 곱하여 계산됨

2004년과 올 상반기 IT수출 증가율의 차이 −43.9% 중 통신기기의 수출 증가율 하락이 약 12.9%, 정보기기의 하락이 약 10.4%, IT부품의 하락이 17.6%를 기록하였다.

다. 지역별 IT수출 추이

2005년 상반기 대중국 IT수출의 증가율 18.7%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세는 둔화되었으나 두 자리수의 증가율이 지속된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IT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되었으며, 특히 미국, 일본의 IT수출은 각각 −19.8%, −18.9%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다. 일본 및 유럽의 IT수출은 PC 및 모니터를 포함하는 정보기기(일본: −23%, 유럽: −14%)와 반도체(일본: −14.8%, 유럽: −21%)의 수출 감소에 크게 영향을 받

은 반면, 미국의 IT수출은 모든 부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통신: −41%, 정보기기: −32%, 방송기기: −48%, 부품: −20%)

지역별 IT수출 증가율 및 기여도

(단위: %)

	2003년	2004년	2005년 상반기	
			증가율	기여도
중국 (홍콩포함)	44.8 (27)	26.9 (26)	18.7 (30)	4.9
미 국	8.7 (20)	31.3 (21)	-19.8 (16)	-4.1
유 럽	19.8 (16)	44.6 (16)	12.2 (18)	2.1
일 본	22.1 (8)	15.5 (8)	-18.9 (7)	-1.6
대 만	4.3 (6)	51.1 (7)	10.3 (7)	0.7
기 타	29.6 (22)	21.6 (21)	5.0 (22)	1.1

주: 기여도는 수출비중(전년동기)에 증가율을 곱하여 계산됨. 괄호안 수치는 전체 IT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IITA

2. IT수출 변동 요인

가. 거시적 변동 요인

1) 2005년 세계 주요 경제의 둔화

2004년 시점에서 예상했던 세계 주요국 경제의 soft landing이 현실화 되지 않는다.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가 상승,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둔화 등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요 전망기관들은 2004년 시점에서 전망한 주요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다.

OECD 2005년 경제성장률 전망 변동 및 2005년 1분기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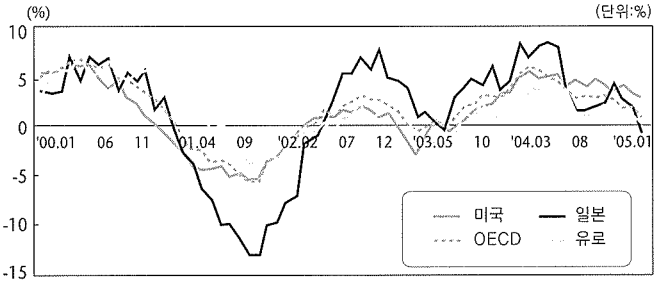
(단위: %)

	2004년	2004년 6월 전망	2004년 12월 전망	2005년 6월 전망	2005년 1분기
OECD	3.4	3.3	2.9	2.6	2.6
미국	4.4	3.7	3.3	3.6	3.8
일본	2.6	2.8	2.1	1.5	0.9
Euro	1.8	2.4	1.9	1.2	1.3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75, No.76, No.77.

미국과 중국은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04년 하반기 이후 일본 및 유럽을 중심으로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은 내구재의 민간소비 증가와 설비투자의 증가가 지속되고,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2분기 GDP 성장률도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분기 GDP성장률: 3.4%) 2004년 9.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은 2005년 1사분기 9.4%, 2사분기 9.5%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한다. 유럽과 일본은 수출과 민간소비가 위축되며 2005년 상반기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 일본, 유로, OECD의 월별 산업생산 증가율(전년동기대비)



2) 원화의 평가절상

2004년 미국의 지속적인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적자 확대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로 2004년 말부터 급속히 원화의 평가절상이 발생하였다. 2004년 11월부터 원화가 급격히 평가절상되어 2005년 5월 평균환율이 1,002원까지 떨어졌다.

미국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과 상대적으로 견조한 경제성장으로 최근 들어 달러 약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원화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2사분기 엔화와 유로화의 대달러환율은 전분기대비 각각 3.0%와 4.3% 상승하였으나 원화는 1.4% 하락하였다.

대달러 주요 통화 환율 추이

	2004/1	2004/2	2004/3	2004/4	2005/1	2005/2
원	1,172	1,162	1,155	1,094	1,022	1,008
엔	107.4	109.7	109.8	105.8	104.4	107.6
유로	0.800	0.830	0.818	0.771	0.762	0.794

나. 품목별 변동요인

이동전화단말기

이동전화단말기 수출이 올해들어 10% 미만으로 낮아진 것은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교체수요 둔화, 업체간 경쟁심화에 기인한다.

- 국내 주요 단말기 제조업체의 주요 수출 시장인 북미 및 유럽 시장에서의 보급률 포화로 교체수요 성장세가 둔화
- 또한 국내업체들이 주력하고 있는 중고가 시장에, 중저가 시장에 초점을 맞춰온 노키아와 모토롤라가 진입하면서 단말기 업체간 경쟁심화
- 지역별로는 신규 시장을 이끌었던 BRICs의 신규 가입자 수가 인도, 중국 등을 중심으로 둔화를 보임

PC

PC업체의 생산기지 해외이전 영향으로 올 상반기 PC 수출은 60%에 육박하는 급감을 보인다.

- 올해 들어 수출이 급감을 보인 주된 원인은 삼성전자가 5월초 노트북PC 국내 생산을 중단함에 따라 노트북PC 수출이 전년동기비 약 65% 격감하여 전체 PC 수출 감소
- 국내 PC업체의 ODM/OEM 수주 물량 감소 또한 수출감소 원인 중 하나임

※ ODM 위주로 수출하는 국내업체가 중국, 대만 업체에 밀리면서 HP, Dell 등 메이저 업체로부터의 수주 물량 감소(삼보: HP거래 중단, LG전자 IBM수주 물량 감소)

※ 2003~2008년까지 아태지역에서 노트북PC ODM생산은 대수기준 17.8%, 금액기준 12.2%씩 증가할 전망이나 이의 수혜는 중국/대만 업체에게로 돌아가고 있음(Gartner, 2005. 1)

DTV

DTV에서 30% 이상을 차지하던 프로젝션TV의 해외생산 증가로 북미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올 상반기 수출이 정체를 보인다.

- 총수출 물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중국 등 전지역에서, 특히 프로젝션 TV의 수출이 해외 현지 생산 증가로 급감

※ 삼성전자의 해외 생산비중이 2004년 80%대에서 2005년 90%대로 급격히 증가

3. 2005년 IT수출 전망

2005년도는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미온적인 IT내수 등으로 인해 IT수출 · 입 성장률이 감소하고, 무역수지 증가율도 10% 미만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 IT시장 성장세 둔화 전망 및 반도체, LCD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하락 등으로 전년대비 5% 증가에 그쳐 큰 폭의 성장세 둔화를 보일 것이다. 수입은 수출규모 감소에 따른 관련부품의 수입 감소 등으로 증가율이 한 자리수대에 머물 전망이다. 통신기기 수출은 주요 품목인 단말기 수출이 고기능 단말기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겠으나 세계 시장 수요둔화, 가격경쟁 심화로 12% 성장에 머물고, 수입은 무선통신기기 부분품 등을 중심으로 10% 증가가 예상된다.

국내 단말기 업체들은 선진시장에서 교체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고기능 제품위주로 공격적인 수출정책을 강화하겠으나 세계 단말기 시장 성장률이 낮아질 전망이어서 단말기 수출은 15%대로 전년도(42%)에 비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정보기기는 해외생산 증가와 경쟁력 약화에 따른 PC 및 모니터 등의 수출감소로 13% 감소하고, 수입은 역수입 증가로 19% 증가 예상된다.

올해도 PC수출은 생산설비 해외 이전과 ODM 수주에서 국내 업체가 중국, 대만업체에 밀리면서 수출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다.

모니터는 가격하락과 중국 · 대만 업체에 대한 국내업체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부품 수출은 D램의 공급과잉 영향 등으로 6.9% 증가에 그친 361억 달러, 수입은 수출둔화 영향으로 성장률이 2.2%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수출은 북미 · EU 등의 소비둔화와 중국 등 신규시장 성장세 둔화, 주력 제품인 D램의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성장률은 전년대비 8% 성장에 머물 전망이다. 방송기기 수출은 해외생산 증가에 따른 DTV 수출둔화, 셋톱박스 수출위축으로 7.6% 감소, 수입은 국내 업체 경쟁력 상승에 의한 DTV, 셋탑박스 수입감소로 약 17.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TV 수출은 하반기에 전세계 디지털TV에 대한 수요가 늘겠으나 국내 업체의 글로벌 생산체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국산제품의 직수출 비중이 감소하여 수출 증가률은 전년도 보다 크게 둔화될 전망이다.

부문별 수출입 전망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04~'05 성장률
통신기기	수출	18,416	25,916	29,124	12.4%
	수입	3,391	3,865	4,252	10.0%
	수지	15,026	22,051	24,872	12.8%
정보기기	수출	10,474	11,345	9,844	-13.2%
	수입	4,391	4,902	5,853	19.4%
	수지	6,083	6,443	3,991	-38.1%
부품	수출	25,911	33,822	36,156	6.9%
	수입	27,849	31,216	31,903	2.2%
	수지	-1,938	2,606	4,253	63.2%
방송기기	수출	2,362	3,130	2,892	-7.6%
	수입	250	318	262	-17.6%
	수지	2,112	2,812	2,630	-6.5%
SW	수출	379	515	554	7.7%
	수입	545	480	582	21.3%
	수지	-166	35	-28	-178.3%
합계	수출	57,543	74,728	78,570	5.1%
	수입	36,426	40,781	42,852	5.1%
	수지	21,117	33,947	35,718	5.2%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05)